

“덕암동 유적지 방치·훼손 안된다”

순천 사회단체들, 아파트 공사 중단 촉구 시공사 “유적공원 조성, 시에 기부채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보존-개발’ 논란이 불거진 순천시 덕암동 선사 유적지에 대해 원형 보전을 요구하는 시민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조상들의 삶이 녹아있는 덕암동 유적을 원형대로 보전,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사연은 “개발업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사연은 앞으로 순천경실련과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문화원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천년유적 덕암동 지키기 순천시민연대’ 발대식을 갖고 정부 차원의 유적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49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덕암동 유적지에서는 BC 3세기부터 6세기에 걸친 주거지 240기와 환호(環壕) 428m, 석관묘, 옹관묘 등 무덤 10여기,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등 170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



주거지 240기와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170여점 등 BC 3세기부터 6세기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된 순천 덕암동 유적지.

다.

그러나 시공사측은 아파트 부지 뒤편에 150평 정도의 유적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순천시도 지난 4일 ‘덕암동 유적지를 원형대로 보전, 역사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 ‘인공어초’ 조성 활발

시, 삼산면 등 914개 투하-어족자원 보호

여수시가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인공어초 투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삼산면 손죽리를 비롯해 남면 두라, 돌산 계동 등 6곳 220ha에 914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했다.

시는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각전주와 사각형, 방갈로형 등 모두 여섯가지 종류의 인공어초를 제작했다.

일명 고기 집으로 불리는 인공어초는 고기들의 산란처며 서식장으로 활용된다.

여수시는 정착성 어류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인공어초 투입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시 ‘문화예술도시’로

폐교 활용, 공방·예술인촌 등 조성키로

여수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난다.

여수시는 폐교 등을 적극 활용해 유명작가들의 작품들을 비치하고 공방과 공연장, 예술인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폐교들을 매입하고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금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오현성 시장은 최근 여수 오동도와 진남문화회관에서 열고 있는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전시회장을 방문해 “섬과 예술, 문화를 접목시켜 여수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 중단...업체 반발

업체 “기본설계비 등 피해액 10여억...소송 제기할 터”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을 전면 중단키로 한데 대해 공사 계약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립박물관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업체로 선정됐던 ㈜A사 관계자는 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박물관 건립 유보를 결정하는 것은 신뢰가 생명인 공공기관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박물관 건립 유보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

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A사는 손해 배상 비용이 기본설계 및 학술용역, 현상공모 및 공사 지연 피해, 출장비용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당초 ‘3러 통합 후’ 유류공간으로 남은 돌산청사를 리모델링해 박물관을 세우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3년 기초조사를 거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사 업체 선정 잡음에 이어 부지 부적합성, 확보된 유물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여론이 끊임없이 일자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결과 사업 중단 후 제3의 장소에, 종합박물관이 아닌 특화 박물관을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 업체에 공사 이행 중지를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관건인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전통 메주 빛어 보세요”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전통 메주 만들기 축제가 열린다.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회(이하 보존회)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읍성내 8개 체험장에서 읍성 주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메주 콩을 삶고 절구로 찌는 전통 방식의 메주 만들기 축

낙안읍성 민속마을 13~14일 축제 개최

제를 연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보존회는 40kg짜리 콩 20포대와 가마솥 10개, 절구통 10개를 준비했다.

보존회는 현장에서 체험에 참여한 가족에 한 해 메주를 숙성시킨 뒤 된장 1kg과 간장 1.5ℓ를 무료로 배급해 주기로 했다. 보존회는 부대 행사로 짚물공예, 떡메치기, 도자기 만들기, 천연 염색들이기 등을 진행하고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365개의 연을 날릴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교육청 교육성과 ‘눈에 띄네’

작년 각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명성 가시

순천교육청(교육장 임영은)이 지난해 전남도 교육청 주관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 최우수 교육 도시로서 위상을 빛내고 있다.

순천교육청은 지난해 전남도 교육청이 실시한 영재교육원 운영 실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남교육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도 교육행정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순천 영재교육원 출신 김민석(연향중 3)군이 ‘국제 중등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 과학 순천의 명성을 과시했다.

또 대전에서 열린 ‘2006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에서 순천 풍덕중이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순천지역은 특히 전남 유일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돼 순천 남산초교 등 5개교와 3개 병설유치원이 5년 동안 4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임영은 교육장은 “순천교육 발전을 위해 교직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 축구 동계 훈련지 각광...전국 118개 팀 몰려



광양시가 체육 꿈나무들의 동계 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광양지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축구와 육상 등 118개 팀 2천750여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연습뉴스

광양항-中 잉커우항 ‘직항로’ 가시화

시, 23일 현지 방문 본격 협의-내달 초 개설 전망

광양항과 중국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항간 직항로가 금명간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측과 합동 조사단을 편성, 오는 23~26일 중국 현지를 방문, 물류 루트 조사 및 관련 기업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협의가 성사될 경우 매월 2회 왕복 운항하고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운항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광양항-잉커우항 직항로 개설 추진은 두 항만이 자국내 부산항과 다롄(大連)항에 각각 밀려 항로 다

양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유사한 환경에 처한 항만끼리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산항에 비해 광양-잉커우항간 거리가 가까워 중국측도 직항로 개설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직항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일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영 동 863-8822
극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합 평 324-8111	고 청 564-1919
		순 창 653-6155

여자가 만든 "라지롱"

여성기업인 라지롱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라지롱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010-8953-4114, 02-2672-0454
010-8953-4114, 02-2633-4110

불기둥

불기둥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불기둥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10-8953-4114, 02-2672-0454
010-8953-4114, 02-2633-4110

맨프라이드

맨프라이드 제품의 광고입니다. 제품의 성능과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80-333-3292